

예술가들이 바라본 시대의 서정적 풍경

이강하미술관 오월특별전 '서정적 순간, 그 이후...'

5·18민주화운동 생각하는 광주 오월 전시는 모두 투쟁적이고 아파야 할까? 광주 남구 이강하미술관이 오는 31일까지 이어가는 오월특별전 '서정적 순간, 그 이후...'는 광주의 오월을 생각하고 있지만, 그날을 상기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어린시절을 보낸 중견작가 박수만·표인부·임남진 3인은 5·18 이후에 여전히 펼쳐지고 있는 삶의 슬픔과 사유, 뒤돌린 단면을 은유한다.

임남진 작가는 한복의 심상에서 착안한 고요한 풍경을 비구상적으로 그려냈다. 한지에 채색해 특유의 동양적인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합판을 덧대 삶의 무게감이 느껴졌다. 그는 오랜 시간 민중미술 단체에서 활동했고 탈퇴하면서, 기존 민중미술적 성향의 강렬한 작업방향에 변화를 줬다. 시대적 문제들을 일상과 주변 인물을 통해 태화나 민화와 같은 그림으로 표

박수만·표인부·임남진 3인 참여 5·18 광주서 어린 시절 공통 경험 1980년 5월 후, 펼쳐진 현대사회 삶의 단면서 개성적 메시지 담아

현했지만, 최근 변하지 않는 근원적 풍경으로 시선이 옮겨졌다.

표인부 작가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바람결에 은유해 떠올린다. 종이 가 가지고 있는 유연함과 가변성을 활용해, 느낌만 남아있던 일상의 감정과 기억을 고정시킨다. 화면 위에 수만 장의 염색한지 조각들을 반복적으로 찢거나 세워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결을 재현한다. 황망할 정도로 깊고 까만 진도 앞바다, 이태원역에 놓인 추모객의 국화 한 송이는 '바람의 기억'으로 남겨지고, 이 바람은 다시 비극 이후에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다. 박수만 작가의 화면에는 비정형적인 인



이강하미술관 오월특별전 '서정적 순간, 그 이후'가 오는 31일까지 이어진다.

이강하미술관 제공

간의 모습이 등장한다. 몸통보다 머리가 크다든지, 팔·다리가 없다든지, 자세가 뒤틀려 있다든지, 다리가 있어야 할 곳에 팔이 있다든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이면을 단적으로 표현한 그림은 유패

한 해학을 선사한다. 특히 권투장갑이 등장하는 작품 '너에게 나를 보낸다'는 때리는 사람 없이 상처받을 수 있는 현대사회의 단면을 은유한다.

이들 3인의 작가는 1980년 광주를 함께

마주했고, 비슷한 시기 미술대학을 다니며 청년 시절을 보냈다. 거센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우리 마음속에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을까? 전시 '서정적 순간'은 각각의 주체가 겪은 순간적 경험을 시작으로 거기서 비롯된 정서적 반응을 주목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지난해 5월 이강하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 지역 협력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한 추천작가-전문가 매칭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임남진 작가와 백기영(전 북서울시립미술관 운영부장) 평론가가 만났고 작가의 대표 작품을 살펴보고 인터뷰를 나눴던 것이 전시로 이어졌다. 이후 이강하미술관은 작가와 평론가를 추가 매칭하면서 프로젝트를 확장했다. '표인부-유영아(국립아시아문화재단 학예연구원)', '박수만-강선주(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원)'를 추가로 연결했고 오월특별전시를 마련했다.

이강하미술관은 남구 양림동에 있다.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일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NCT WISH(왼쪽부터 료, 유우시, 리쿠, 시온, 사쿠야, 재희)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 'NCT WISH'

K-pop 글로벌 보이그룹 'MZ세대에 큰 반향' 기대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에 K-pop 글로벌 아티스트 멤버로 구성된 NCT WISH(엔시티 위시)가 선정됐다.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오는 9월 7일 개막하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국내외를 넘어 전 세계로 알릴 홍보대사로 NCT WISH를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재)광주비엔날레는 NCT WISH가 1995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30년 동안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 전시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구축하고 새로운 담론의 실험정신을 보여준 광주비엔날레의 이미지와 부합해 홍보대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 2월에 데뷔한 NCT WISH는 시온, 리쿠, 유우시, 재희, 료, 사쿠야 등 총 6명의 멤버로 구성돼 있으며, 정량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돋보이는 아이돌 보이그룹이다. 멤버들과 팬들의 간절한 소망이 맞닿아 탄생한 팀을 의미하는 팀

명 NCT WISH는, 'WISH for Our WISH'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NCT WISH의 음악과 사랑으로 모든 이들의 소원과 꿈을 응원하며 함께 이루어 가자는 포부를 갖고 2024년 최고의 신인으로 주목받으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광주비엔날레는 홍보대사 NCT WISH와 함께 MZ세대에게 큰 반향을 불러올 것을 기대하며, 광주비엔날레가 지닌 유무형의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CT WISH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기쁘다. 홍보대사로서 광주비엔날레를 전 세계의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15회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 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을 주제로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1일까지 86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하여 양림동 일대에서 개최된다.

도선인 기자

ACC, 문화예술 인재양성 산실 발돋움

'ACC 전문인' 문화현장서 활약 14일까지... '2단계' 참여자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예술 인재 양성의 산실로 발돋움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한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인 'ACC 전문인'을 통해 현재까지 배출한 국내외 인제는 총 3000명에 이른다.

특히 'ACC 전문인' 교육과정을 통해 성장한 인재들이 문화예술 현장 곳곳에서 활약 중이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

지난 2019년 'ACC 전문인' 과정을 수료한 염인화 작가는 지난해 '2023년 ACC 레지던시 프로그램' 작가로 선정되며 다시 광주를 찾았다. 올해는 LG아트

센터 서울 개관 1주년 기념 '미디어아트 신진작가'와 대전시립미술관 '넥스트코드'의 올해 작가로 선정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문화예술기관인 광주비엔날레(2020년 수료, 선화리), 광주 동구 미술센터(2020년 수료, 강릉희), ACC 전시기획과(2022년 수료, 고유진),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2023년 수료, 강나래·박지원)에 근무하는 등 'ACC 전문인'으로 성장한 인재들의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ACC는 교육과 현장을 잇는 실무 중심 교육인 'ACC 전문인' 교육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외 문화예술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CC는 지난 4~5월 진행된 'ACC 전

문인-콘텐츠 발굴 1단계' 교육에 이어 오는 14일까지 '콘텐츠 발굴 2단계'에 참가할 예비 전문가 50명을 모집한다. 2단계 교육과정은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 및 휴가기간(7월 30일~8월 22일)에 운영한다. 교육은 ACC에서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하는 융·복합가상 콘텐츠 창작과 기획 실습, 시연, 심화 강연으로 진행된다.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 전문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는 10일에는 온라인으로 모집요강과 교육에 대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질 예정이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며, 광주지역 외 거주자에게는 숙소를 지원한다.

도선인 기자

소리 본향의 진수... 시즌3로 돌아온 '그린국악'

전남도립국악단 토요일무악회 6일부터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삶의 희로애락과 함께 '오늘의 전통'을 노래하는 전남도립국악단이 토요일무악회 '그린국악' 시즌3로 돌아온다. 조용안 예술감독 취임 후 첫 시즌으로, 다양한 연출적 변화와 고품격 전통 프로그램들로 재단장해 오는 6일부터 9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무안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관객을 맞는다. 이번 시즌3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공연은 오는 20일부터 3주간 펼쳐지는 전통

시리즈다. 20일 첫 무대에서 '판소리 연창 시리즈'로 △'춘향가' 이별가 대목 △'흥보가' 제비노정기 대목 △'수궁가' 토끼·자라 만나는 대목 △'적벽가' 적벽갈 불 지르는 대목 △'심청가' 심봉사 눈 뜨는 대목 등 판소리 다섯 바탕 중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대목들을 엄선해 선보인다. 이달 27일에는 '전통 무용 시리즈'를 선보인다. 태평무, 살풀이, 화선무, 승무, 흥무리, 진도북춤 등 전남도립국악단 무용부 단원들이 오랜 시간 수련하고 체득해온 대표 춤사위로 무대를 수놓는다. 한 주 건너편 8월 10일은 '전통 기악 시리즈'다. 가야금 산조부터 해금, 거문고, 대금, 아쟁에 이르기까지 전남도립국악단 기악부 단원들만의 채색으로 시원한 선율을 선물한다. 도선인 기자

全南日報 50년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